

광주 시민 자발적 참여가 코로나19 대확산 막았다

11일간 확진 4명...뚜렷한 안전세
방역당국 선제적 대응도 한 몫
휴가철 개인방역 수칙 철저 당부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광주가 뚜렷한 안전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다중이용시설·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등 강력한 선제적 대응, 그리고 시민들의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으로 이뤄낸 성과로 평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생업과 일상생활 제약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코로나 19의 폭발적 대확산을 빠른 시간 내에 막을 수 있었다”면서 그 공을 시민들에게 돌렸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6개월간 지역 확진자는 206명이다. 이 가운데 2차 유행이 시작된 6월 27일 이후 확진자는 174명이다. 7월 1일 하루에만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팬데믹 우려까지 나왔다. 다행히 지난달 24일부터 이날 오후 6시 현재 11일간 확진자는 4명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 입국자가 2명이다. 지역 감염자는 지난달 25일 1명이 발생한 뒤 8일째 나오지 않다가 9일째인 이날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전환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지자체 주도로는 처음으로



광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첫 날인 3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모처럼 친구를 만난 원생들이 즐겁게 놀이를 하고 있다.

로 7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거리 두기 2단계 적용했다. 지역 휴대전화 이동량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전인 7월 1일 94만8000건에서 12일에는 55만건으로 42%가 감소할 정도로, 시민들의 외출 자제 등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또한, 공공기관, 시의회, 자치구, 시민사회단체 등이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을 호소하는 범시민 운동을 주도하고 종교단체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했다. 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주택관리사

협회 소속 관리소장 등은 휴일에도 안내 방송으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엘리베이터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부착, 공용 시설 방역 등을 직접 이끈 점도 재확산을 막아내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계의 기부 행렬도 이어졌다. 현재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코로나19 극복 기부 금품은 234건, 51억여원 상당이다. 개인이 수확한 쌀, 밤, 호박 등 농산물부터 기업에서 제작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 등을 격려

하는 간식, 비타민 등이 답지했다. 아파트 봉사단은 방역 활동은 물론 소외 계층에게 반찬 나눔, 돌봄 활동으로 온정을 나눴다. 이정식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 밀접접촉 금지, 다중 이용시설 방문 자제, 휴가철 준수 사항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위드(with)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기다렸던 문화·체육행사 ‘가지개’

광주시 방역수칙 준수 아트포크닉·프린지페스티벌 등 개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광주지역 문화·체육 행사도 가지개를 켜게 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에 재개되는 야외 행사는 중외공원과 풍암공원에서 열리는 가족 문화예술 프로그램 ‘아트포크닉’과 전통문화관의 ‘주말 상설공연’, 문화예술회관의 ‘국악 상설공연’ 등이다.

국악 상설공연은 관객 사이의 안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객석제’를 유지하는 등 가용 객석은 50% 미만으로 줄여 운영된다.

9월에는 매주 토요일 아시아문화전당과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거리 두기 등에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 이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될 프로야구는 4일부터, 프로축구는 16일부터 경기장 수용 규모의 10%를 상한선으로 제한해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 광

주시는 모든 행사에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제 비치, QR코드 입장 등 방역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2020 문화예술 공연전시 온라인 예술극장’도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접제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사업으로 공연과 전시 실황을 해설이 있는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연예술 20개 팀, 시각예술 10개 팀을 공모로 선정한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문화·체육 행사가 지속하려면 주최자의 완벽한 방역 준비, 참여자의 수칙 준수를 실행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기도록 관리와 점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日 강제징용기업 자산 압류절차 개시

일본제철 오늘 공시송달 효력 발생...실제 현금화는 시간 걸려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이에 따라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주식회사 PNR의 주식 8만 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 5000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를 기해 발생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지난 6월 1일 피해자가 낸 압류명령 사건에서 압류명령 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한 바 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붙을하는

경우 법원 계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앞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오는 11일 주식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하려면 법원이 매각명령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제철 자산 현금화는 주식감정절차와 법원 매각명령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외교부, 성추행 의혹 외교관 즉각 귀임 발령

뉴질랜드 요청시 사법공조·범죄인 인도 등 절차 협조

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게 3일 귀국을 지시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요청하는 당사자 조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정당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뉴질랜드 요구에 협조할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제기하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설

명했다. 터너 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만 말했다.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 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그러나 외교부는 주뉴질랜드 대사관이나 현재 공관 직원들에 대한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전체 하에 서면 인터뷰나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할 의사를 뉴질랜드 정부에 제안했다. /연합뉴스

50세 미만 환자 99% 산소투여 없이 회복

중앙임상위, 국내 3060명 코로나19 환자 예측 분석

국내 50세 미만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은 산소 투여 없이 회복했다는 대규모 임상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연구팀은 올해 1월 20일 첫 환자 발생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55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3060명의 임상 경과를 관찰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예후는 연령과 입원 당시 증증도에 따라 달랐다. 연구대상 환자 나이의 중간값은 43세, 발병에서 입원까지는 5일이 걸렸다. 입원 시 증증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50세 미만 환자 중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14일 시점에 산소치료 혹은 인공호흡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반면 50세 이상에서는 17.3%가 산소치료 혹은 인공호흡치료가 필요했다. 증상 발생 후 28일 시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때 50세 미만 코로나19 환

자 중에서는 1.5%, 50세 이상에서는 13.2%가 산소치료를 또는 인공호흡치료가 필요했다. 증상 발생 후 28일을 기준으로 치사율을 봤을 때 50세 미만 코로나19 환자가운데 사망한 환자는 없었다. 다만 50세 이상에서는 나이에 따라 치사율이 높아져 50~59세가 0.5%, 60~69세가 0.9%, 70~79세가 5.8%였다. 80세 이상 환자의 치사율은 14.0%에 달했다. 환자의 초기 증증도도 예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확인됐다. 입원 당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증상 발생 후 28일 시점에 71.5%가 회복하고, 7.7%가 사망했다. 회복은 격리 해제돼 퇴원하거나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입원 때 인공호흡이 필요한 수준이었던 환자는 증상 발생 후 28일 시점에 19.5%만 회복하는 데 그쳤다. 이들 중 22.2%는 사망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본명 조영진
서울에서 스쿠알렌사업
했을 때 이름 **김홍삼**
내 돈 같아요
안감으면 고소할 게요
신은선 010-3305-9974

정 정 공 고
본지 2020년 8월 3일자 게재된 엘엠아이텍 주식회사 자본감소공고 중, 사업자명 엘엠아이텍 주식회사를 알엠아이텍 주식회사로 정정 공고함.

산행안내
8월8일(토)
▲광주호산회 8월8일(토) 대원사 계곡 괴사산행 대원사 둘레길,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화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8월22일(토)
▲광주호산회 8월22일(토) 거제 대룡령휴양림 저도 망봉산 트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화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 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우진전력(이하"을"이라 한다)은 2020년 08월 03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내에 본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08월 04일
"갑"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43(선암동) 회 사 명 :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 수
"을" 주 소 : 전라북도 전안군 전안읍 전창로 64 회 사 명 : **주식회사 우진전력** 사내이사: 이 철 구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윤도(851104-XXXXXX)
• 최후주소 :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137-2 104동 1201호 (송정동, 송정동리인2차아파트)
피상속인 망 김윤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년단3460호로 신청하여 2020년 7월 2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8월 4일
• 상속인 : 서양원(621120-XXXXXX) 친인시 동남구 청성3길 147, 107동 402호 (청당동, 행정타운 두산위브더파크)
• 신고기간 : 2020. 8. 4. ~ 2020. 10. 13.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서양원의 주소

8월29일(토)
▲광주호산회 8월29일(토) 거창 월상계곡 서출동류 물길트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화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8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나방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5-5530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암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5-5530 · 백 운 651-1833 · 봉 신 675-5530
· 송 호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